

■ 교육

명문대 당락, 비학업적 요소에서 갈렸다

2021학년도 대학 합격자 발표가 4월 초에 모두 끝났다. 복수 합격자들은 여러 합격 대학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졌거나 일부 대학에서 웨이팅을 받고 실의에 잠긴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금년도 미국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상위권 대학들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은 지원자가 전년 대비 42% 늘었다. 브라운 대학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하버드는 물론 브라운도 역사상 가장 많이 지원자가 늘었다.

UCLA 지원자는 무려 13만 명이 넘었으며 UC 버클리도 1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을 했다. 이런 엄청난 지원자 폭증 속에서 성적이 중요하지만 대학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기는 어렵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성적 우수 학생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성적은 기본이고, 비학업적 요소 즉 에세이, 추천서, 특별활동에서 차별화가 이뤄져야만 합격을 거머쥘 수 있다.

실제로 완벽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로 떨어졌다. GPA 만점에 SAT 1,590점을 받았어도 가고 싶은 대학에 모두 불합격된 사례가 있다. 이런 현상은 예년에도 있었지만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금년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SAT 읍서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액티비티 기록이 특별하지 않다. 그냥 평범한 특별활동을 한 학생들이다.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글을 잘 써서 에세이를 혼자서 다 했어요.”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

문가에게 보여주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부모나 학생의 눈에는 잘 쓴 에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한 대학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되는 에세이를 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했다면 더욱 그렇다.

누구에게 대신 써 달라고 부탁하라는 뜻이 아니다.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신문기자들도 기사를 작성하고 나면 혹시 고칠 데가 있지는 않은지 노련한 선배 기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데스크킹을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쓴 글은 부족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논리적이고 풍성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쓴 글을 교사로부터 수정을 받듯이 입시 에세이에도 첨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추천서도 문제일 수 있다. 주요 과목의 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해서 그에게 꼭 맞는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썼을 수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했다라도 글 솜씨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잘 아는 교사, 글 솜씨가 좋은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금년도 미국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학생 가운데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비학업적 요소의 부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1학년들은 학업적 요소 외에 비학업적 요소도 충실하게 챙겨야 원하는 대학 진학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San Juan Hill-Chino Hills State Park

트레일 헤드에서 편도 2.9마일 왕복 5.8마일로 길 따라 걷는다. 고도가 높지 않고 평평한 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함께 다녀오기를 권한다. 지난 4월 21일 찾았을 때 온통 노란 꽃으로 물들어 있었다. 산들바람 따라 춤추는 노란 꽃물결에 취해 한동안 멈춰서 있지 않을 수 없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작은 구릉들이 모두 노랗게 물들어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수 있다. 함께 걸었던 친구는 이 좋은 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다.

트레일 헤드 가는 길: 풀러턴에서 Bas-tanchury Rd.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 57Fwy. 지나서 계속 가다 보면 Fairmont Blvd.를 만난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잠시 가면 Rim Crest Dr. 만나 좌회전한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Blue Gum Dr.를 만난다.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오른쪽 길 따라 몇 걸음 옮기면 자동

차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쇠문이 나타난다. 바로 그 문을 들어서면 이정표가 반겨준다. 목적지 San Juan Hill까지 가려면 이정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잠시 걷다보면 꽃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 생각해봐라. 눈길이 미치는 사방팔방이 온통 꽃이 덮고 있는 그 길을.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다. San Juan Hill은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온 세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오전 길로 돌아오기 싫으면 San Juan Hill에서 1마일 정도 내려가면 삼거리 를 만난다. 거기서 왼쪽 길, Telegraph Canyon Rd.를 택해서 그대로 오면 출발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약 8마일을 걷게 된다. 이 길을 택했을 때 주의할 점은 중간에 많은 트레일이 나오는데 길을 잘못 택하면 사방이 탁 트여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데도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초행일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San Juan Hill로 가는 길은 온통 노란 꽃으로 물들어 방문객의 발길을 멈춰 세운다.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